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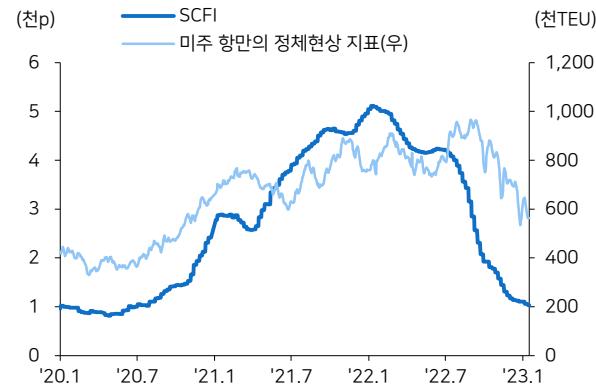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1. 20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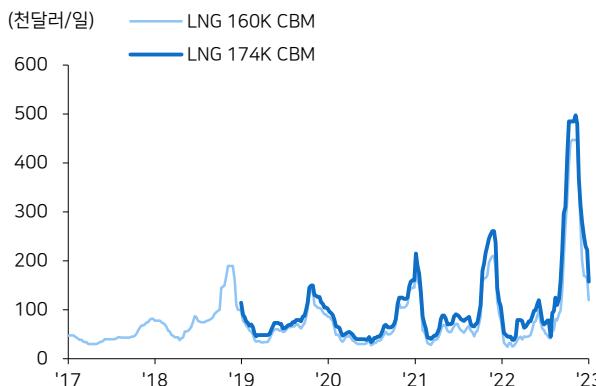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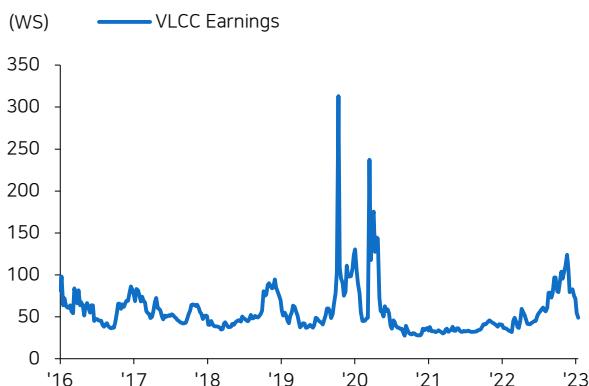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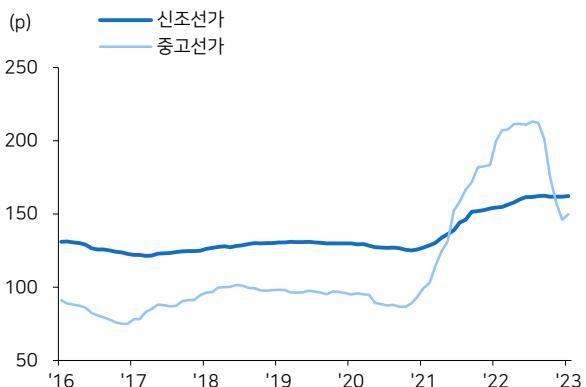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801.0p(-73.0p DoD)	컨테이너운임(SCFI)	1,031.4p(-29.7p WoW)
------------	--------------------	--------------	----------------------



VLCC Spot Rate	49.0p(-5.8p WoW)	LNG Spot 운임	93.8p(-26.3p WoW) 127.5p(-30.0p WoW)
----------------	------------------	-------------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4p(+0.2p WoW) 150.1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57.8p(+0.2p DoD) 105.1p(+0.9p DoD)
-------------	--	---------	--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삼호중공업, 6,267억원 규모 LNGC 2척 공사계약

현대삼호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67억원 규모 LNG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당 2.53억달러 수준임. 2026년 11월 인도될 예정으로 공시됨. (한국경제)

대한항공, 유럽 하늘길 복귀…3월 프라하 운항 재개

대한항공이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프라하 노선 복귀로 아시아 직항 노선을 제공한다고 보도됨. 오는 2월 27일부터 인천~프라하 정기노선을 재취항한다고 알려짐. 주 3회 일정으로 재개하나 올 여름 수요가 많으면 주 4회로 늘린다고 알려짐. (더 구루)

법원 “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계약금 230억 반환

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됨.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5억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짐. 한편,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팬데믹 이후 체불 임금 등 비용에 대한 책임 여부로 갈등을 빚다 2020년 7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조선Biz)

India to ban 25-year-old tankers and bulkers, impose S&P age limit

인도가 며칠 내로 기항선박과 중고선박 매입에 있어 선령 제한을 둘 예정으로 보도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선령 25년 이상의 탱커, 벌크선 등 선박은 용선주 국적에 무관하게 기항할 수 없음. 가스선, 컨테이너선 및 기타 해상지원 선박은 선령 30년까지 허용됨. 중고선박 매입의 경우 준설선은 15년 이하, 그 외 선박은 20년 이하의 선박만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임. (Tradewinds)

Hoegh LNG inks second 10-year deal on an FSRU with German government

노르웨이 Hoegh LNG가 독일 정부와 두번째 10년짜리 FSRU 용선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2018년에 건조된 170,000CBM급 FSRU로 알려짐. Elbehafen LNG 프로젝트에서 세번째 FSRU로 도입된다고 알려짐. (Tradewinds)

Saudi Aramco poised to tender huge CCS project, targeting multiple gas plants

사우디 Aramco가 다수의 가스 플랜트를 포함한 대규모 CCS 프로젝트 입찰을 열 것으로 보도됨. 첫 입찰이 될 ACCS EPC 입찰은 이르면 2월초 시작될 수 있다고 알려짐. ACCS Phase 1은 CO2 약 9MTPA 포획용량을 갖출 예정임. Phase 1은 7~8억달러규모로 언급됨.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및 DL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수십억 달러규모의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60MTPA의 포획용량을 갖출 것으로 언급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